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 잃고 남은 근로자는 고강도 노동

아파트 경비원 해고·편의점 직원 축소...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속출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 지 일주일여 지나면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는 근로자들이 잇따르는 등 고용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을 비롯한 취업 취약 계층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세게 불면서 보완책을 넘어서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654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 증가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1988만3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9%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3%를 기록한 후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아졌다.

이처럼 비정규직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지만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방침에 상당수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인력을 줄이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 32명 중 절반인 16명을 해고했다. 아파트 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원 월급 상승이 구제

회합에 따라 지난해 가을부터 입주민 연서명과 동대표회의를 통해 감원 방침을 확정했으며, 지난달 31일자로 고용 기한이 끝난 경비원에게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이 많은 편의점업계에도 인건비 부담으로 인력을 줄이고 야간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 A씨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 급여가 올라 걱정이 많다. 정직원 1명을 포함해 아르바이트생 3명 등 총 4명을 고용중인 A씨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그만두게 하고, 대신 평균 하루 6시간이던 근무 시간을 늘렸다.

식당 등 영세한 골목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업주는 매출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자 인력 감축과 가격 인상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최저임금 인상 전 8만원 수준이었던 식당 종업원 일당은 새해부터 9만원 이상으로 올랐다. 크게 된 인건비 부담으로 음식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격 인상

으로 손님이 뜰해질 경우에는 인력 감축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경제계는 이 같은 움직임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불안과 경기불황, 노동강도 증가 등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라 부담을 견디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난 인건비 부담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지원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놓았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3조원을 들여 30인 미만 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해고한파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유승민 '주춤' ... 전당대회 '난항'

국민의당 통합행보 '흔들'

바른정당과의 통합 드라이브에 나섰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전퇴양난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당장 합당 파트너인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과 관련해 유보적인 입장을 하는가 하면, 합당 의결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문제도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여기에 당내 중재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통합 이

전 대표직 사퇴' 요구가 비등하고 있어 안 대표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 문제의 최종 결정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통합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안보정책 차이와 관련, "안보위기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안보위기 해법에 대한 생각이 같은 정당과 (통합)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유 대표의 이날 발언은 신당의 정체성 문제가 해결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통합 판단을 재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당내 통합파 의

원들 사이에서도 포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 해법 찾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통합을 위한 필수 절차인 전당 개최도 꼬이고 있다. 중앙선거위가 전대에서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전자투표 방식으로 통합 전당을 추진하려던 안 대표 진영은 전당 정족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통합파는 권역별 전당대회 개최 등을 포함한 '플랜 B'를 논의하고 있지만, 정족수 확보와 각종 절차적인 문제를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당내 중립파 의원들은 안 대표의 조기 사퇴를 중재안으로 내놓고 있다. '중도 통합'에 힘을 싣고 있는 손학규 상임고문 역시 안 대표가 한 발짝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대표 측에서는 대표직 사퇴는 통합 동력 상실로 이어진다면 일축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신안 증도 갯벌에 천연기념물 황새가 찾아왔다

8일 신안군 증도 갯벌에서 황새(천연기념물 제199호·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가 먹이를 찾고 있다. 전세계에 2500여마리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황새는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충북 음성에서 마지막 한 쌍 중 수컷이 산란 직후 밀렵꾼의 총에 맞아 죽은 뒤 자연 번식이 중단됐지만 지난해부터 증도에서 목격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짚다

광주시·전남도, 지역에 직접 도움 주는 상생방안 마련

광주시와 전남도가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한 '빛가람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한다. 그동안 혁신도시 관련 대부분의 계획이 기반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 등에 맞춰졌다면 '혁신도시 시즌2' 계획에는 지역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생방안이 곁들여 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8일, 정부 예산 1억 8000만원을 들여 빛가람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조만간 공동 발주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말에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조만간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지정해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기업 투자유치 등을 위해 용적률 등 입지규제 완화, 투자 선도지구 선정 등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구상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전 기관별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민 대상 장학금도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 해당 지자체별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우선 수립할 것을 요구했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지역에 맞는 발전 전략을 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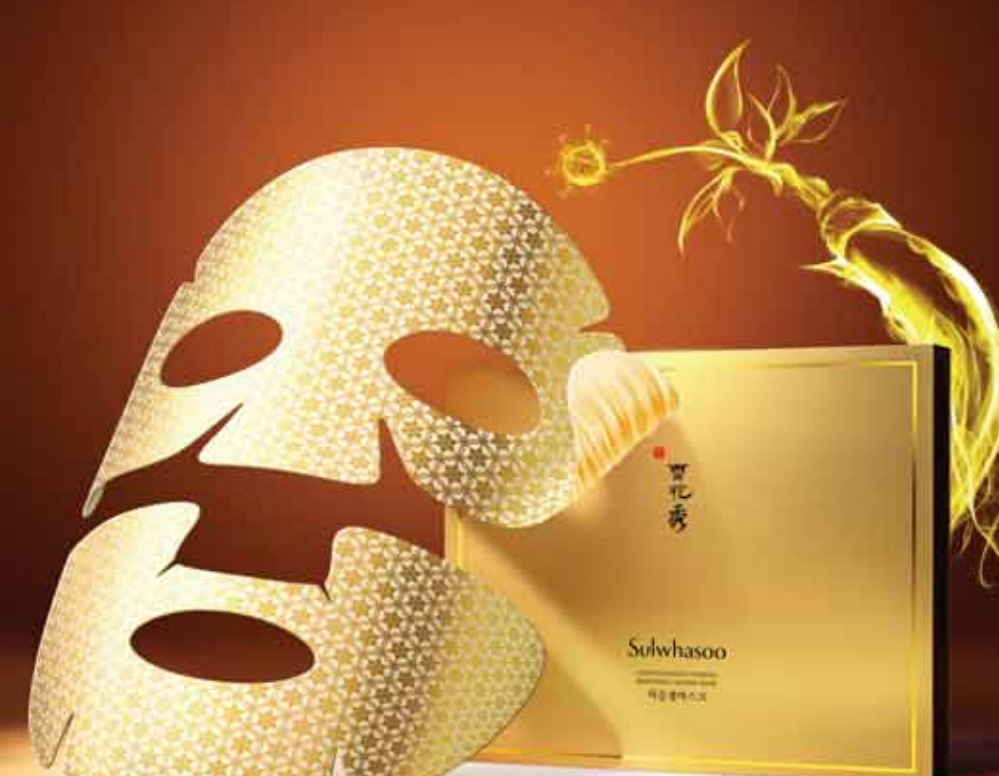
현재 빛가람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는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지역인재 채용 및 수요맞춤형 인재양

성 ▲스마트시티 구축 ▲구도심·산단 등 인근지역 상생방안 마련 ▲공간 효율성 확보를 위한 도시여건 분석 ▲산업·인재·인프라·지역상생 등 분야별 세부사업 발굴 등이 포함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빛가람혁신도시의 발전을 이끌 수 있게 됐다"면서 "혁신도시 이주 공공기관 등과 지역이 협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 등이 이번 빛가람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진석의 '노장적 생각' ▶18면



인삼의 생명력을 담은 혁신적 마스크
우아하게 빛나는 탄탄한 피부를 선사하다

NEW 설화수 자음생마스크

건강하지 않은 피부상태가 지속되면 피부는 힘을 잃게 됩니다
인삼에서 찾은 강력한 에너지로 집중적인 피부 개선을 돕는 자음생마스크

인삼 뿌리의 핵심 에너지를 담아 집중적인 보습과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음생크림의 부드러운 그대로를 담은 이중 구조 더블 랩핑 시트™로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합니다
이제 자음생마스크로, 경량해보지 못한 혁신적인 마스크 인티에이징을 시작하세요

Sulwhasoo

• 설화수 플레그십스토어 및 한국 백화점, 아울렛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레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